

<کمپايشن نیوسلیر 1960년 9-10월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찾아뵙고, 여러분과 사랑하는 한국 고아들, 전도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감동적인 일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지상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편지에서 읽으신 대로, 오퍼레이션 롱 언더웨어(Operation Long Underwear, 이하 OLU)는 제가 아내와 함께 6월 중순 한국에서 12개의 새 보육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돌아온 후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6개의 보육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현재 432명의 어린이들이 있고, 총 1,000명이 넘는 미결연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과 후원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된다면 1,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단체가 이 어린이들을 **기쁨으로** 후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명 중 한 명이라도!

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도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후원자 **네 명 중 한 명이 한 명씩만 더 후원**하거나 후원자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면 **즉시 모든 어린이들**을 후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부 후원자들은 2명이 최대 6명까지 후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 명을 돌보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한 명을 더 후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교회 그룹에 알림으로써 새로운 후원자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해주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1,000명의 새로운 후원자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한 명을 더 후원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십시오.

셋째, 후원자가 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넷째, **지금 당장** 하십시오!

신청서가 인쇄된 특별한 노란색 후원 봉투를 보내드립니다. 편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작성하고 우표를 붙여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매일 이 노란색 후원 봉투가 도착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주님과 어려움 속에 있는 소중한 고아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후원하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훈련하여 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 주님을 계속 섬기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축복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에버렛 스완슨 올림

추신.

저와 아내는 한 명을 더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의 이터널 라이프 보육원(Eternal Life Orphanage)에 있는 불쌍하고 연약하며 굶주린 여자 아기입니다. 이렇게 힘든 수많은 어린이들을 볼 때 누가 "공활한 마음(Compassion)"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기는 올해 2월 8일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 아내의 생일과 같은 날로 생일을 정했습니다. 이 아기는 저희가 방문하기 이틀 전에 버려져 이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보육원에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원장님에게 더 이상 어린이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정 사모님(Mrs. Jung)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이 아기들을 더 이상 받지 말라고 하셔서 아기들을 거절하기 위해 거의 싸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데리고 있는 아기들부터 잘 돌봐야 합니다. 이 아기들을 위해 목사님께서 속히 후원자를 찾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명 더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 교역자가 오르간을 구입했습니다.

김효열 (Mrs. Kim, Hyo Yul) 전도사는 한국의 훌륭한 침례교 여교역자 중 한 명으로서 일리노이주 록퍼드(Rockford)에 있는 미션 코브넌트 교회(Mission Covenant Church)의 소중한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00달러를 주고 그녀가 예배에서 연주할 수 있는 이 훌륭한

한 한국산 오르간을 구입했습니다. 전도사는 감사의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이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전액 후원금은 한 달에 10달러입니다.) "이곳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세 번째 교회입니다. 학생 시절 농촌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원대교회(Wondae Church)는 신학교 졸업 후 개척한 두 번째 교회입니다. 현재 개척하고 있는 세 번째 교회는 선애침례교회(Sun Ae Baptist Church)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특별 중요 공지

대부분의 후원자가 6개월 또는 1년 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후원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원자가 사진, 양육 기록 등을 당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후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희에게 통지하실 필요는 없으며, 월간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 후원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서류를 반환하셔서 저희가 새로운 후원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계속 후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고아들이 사역을 위해 공부합니다.

이 훌륭한 청년은 우리의 첫 번째 고아들 중 한 명으로, 거리에서 거지로 살았고 전쟁 중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는 뉴 라이프 보이즈 앤 걸즈 보육원(New Life Boy's and Girl's Home)에 들어온 직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사역을 위해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의 후원자에게 이것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신학교의 모든 비용은 한 달에 약 15달러입니다!

우리 홀리 램프 보육원(Holy Lamp Orphanage)의 또 다른 청년 정준길(Jung Jun Kil, 고아)은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을 느꼈고, 그의 후원자가 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보육원의 여고생 오주희(Oh Ju Hi)도 "신학을 공부하여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한 일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점점 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보육원 원장님들의 소식

"정말로 감사합니다, 스완슨 목사님. 대구의 강 선생님이 저희 보육원을 위해 돈을 보냈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불러서 이제부터 목사님이 저희를 돕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우

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목사님과 우리 보육원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저는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의 신앙이나 종교활동은 오로지 어린이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것으로 진정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보다는 말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희를 찾아와 말씀을 나누자, 저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신 후 전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제 자신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추구하기보다 나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참된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나약하며, 굳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고: 스완슨 목사는 지난봄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제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는 이 어려운 보육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가 이터널 페이스 보육원(Eternal Faith Orphanage)을 지원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질문하셨던 내용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시 당국은 우리 보육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으며, 시장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 당국은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 목사님과 기꺼이 100% 협력할 것입니다. 이제 걱정할 것이 없으니 즉시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이 사역에 저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 박(Park) 장로

(참고: 스완슨 목사는 마산시로부터 시립 보육원을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이전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고,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에 모든 자산이 이양되며 온전한 기독교 이사회 및 직원들이 참여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김포공항을 떠날 때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졌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많이 보고 싶지만, 한국을 떠나는 것이 저희 모두

에게 은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신 이후로 저희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남해 머시 앤 러브 보육원(Mercy and Love Orphanage), 이상철(Lee Sang Chul) 원장

“**지난 22일** 많은 보육원 원장님들이 계셨던 해운대에서 처음으로 후원금을 받았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큰 헌신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벌써 후원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저 역시 감사의 편지를 쓸 것입니다. 첨부된 사진에 보이는 어린 소녀는 항상 스완슨 목사님에게 데려다 달라고 고집하는 소녀, 장미자(Chang Mi Ja) 어린이입니다. 몇 번에 걸쳐 주일에 교회에 데려갔지만,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소녀는 생후 2주도 채 안 되었을 때부터 저희 보육원에서 키웠기에 엄마의 모유도 한 번 맛보지 못한 어린이입니다. 미자는 아주 영리한 소녀입니다. 목사님을 너무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어린 소녀의 사진을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내 드립니다.”

– 머시풀 라이트 보육원(Merciful Light Orphanage), 장덕재(Chang Duk Jae) 원장

(참고: 이 소녀는 저희 보육원에 대한 지원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목사님이 처음 이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품에 안아 주셨던 소녀입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힘들었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저희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길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 모든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 준 에블린 존슨 (Miss Evelyn Johnson) 양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친절하게도 30명 가까운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주었고 이미 63번과 79번 두 명의 후원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월 170달러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노력과 은혜로 더 많은 후원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원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일어난 이 모든 좋은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꼭 건강 잘 챙기십시오.”

– 홀리 램프 보육원(Holy Lamp Orphanage), 객삼균(Miss Kwak Sam Kyun) 원장

오퍼레이션 롱 언더웨어(Operation Long Underwear)

어린이들에게 겨울옷을 제공하기 위한 저희의 호소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어제는 지금까지 받은 우편물 중 가장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OLU’ 프로젝트를 위해 10달러를 동봉합니다. 저희 어린이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어린이들을 위한 목사님의 훌륭한 계획은 정말 크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방문한 가난한 보육원 중 한 곳을 위해 10달러를 동봉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같이 헌신적이고 믿음이 깊은 한 영혼을 통해 하시는 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후원자와 친구들은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휴가철이고, 많은 단체 후원자들이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후원자가 자신의 고아(들)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해 추가로 후원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두 명이 각각 40달러씩 보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옷은 각각 10달러이고,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옷은 각각 5달러입니다.

저는 69개 보육원의 원장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기금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역으로 배송, 환전, 배포하는 데 약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9월 1일까지는 기금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후원자들이 이 기금을 채울 것이라 믿으며, 일부 기금은 선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도와주십시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기에 결코 이른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아에게 특별한 소포를 보내고 싶다면(의무는 아닙니다), 가능한 10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물품 구매와 우편 발송에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우편으로 소포를 많이 보내 본 우리의 훌륭한 후원자들의 조언에 따르면, ¹시어즈 백화점(Sears Roebuck)에 우편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주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머지는 처리는 시어즈 백화점에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의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좋다고 합니다. 무릎을 덧댄 플란넬 안감의 청바지(슬림 스타일 제외), 후드와 방한용 토시가 달린 스웨트 셔츠, 스웨트 바지, 코듀로이 또는 플란넬 셔츠, 니트 모자, 양모 또는 두꺼운 면양말,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두꺼운 스웨터와 안감이 들어간 청바지, 방한 점퍼, 긴 스타킹, 따뜻한 블라우스 등입니다.

이번 봄에 보육원을 방문하면서 다음과 같은 작은 것들에 매우 고마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창고, 안전핀, 칫솔과 치약, 스카치테이프, 고무줄, 종이 클립, 질 좋은 연필, 질 좋은 3홀 노트 및 속지, 화장실 비누, 수건, 옷핀 등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일반 내용물과 함께 비닐봉지에

¹시어즈 백화점(Sears, Roebuck and Company): 미국의 세계적인 유통업체.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들에게 연중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입니다.

연 60~120%의 이자를 받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저희 보육원들이 돈을 빌려야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저 이율은 월 5%이며, 월 최대 10%입니다!

저희가 보육원을 인수하기로 동의할 때, 그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만 해도 한국 정부에서 받는 어린이 1인당 월 75센트 정도의 지원금에 맞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는 향후 지원금을 담보로 이자 없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대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보육원들이 매달 이자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금은 이러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보육원들이 많은 수리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필요를 돕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출 회전 기금(Loan Revolving Fund)"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 도움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러한 방식이 보육원들이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 자금을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여유 자금을 "대출 회전 기금(Loan Revolving Fund)"으로 지정하여 보내 주십시오. 천국의 재무장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배당금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중고 구호 의류

한국의 대구 '오퍼레이션 헬핑 핸드(Operation Helping Hand)' 운영 담당 군목은 헌 옷이나 새 옷, 또는 어떤 사용 가능한 물건이라도 보내주시면 기꺼이 접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사무실로 가져가서 필요한 곳으로 분배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구호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내에 있는 특정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소포는 무게가 44파운드(약 20킬로그램)를 초과하거나 길이와 둘레의 합이 72인치(약 183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은 보험이 가능하며 우편 요금은 샌프란시스코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편지를 같이 보내고 싶다면 추가 요금 4센트를 부담하면 됩니다. 이후 목사님과 보육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 물품을 보낼 수 있는 보육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대구 지역입니다.

(보육원 리스트: 원본 이미지 참조)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이미지 참조)

그런 다음 왼쪽 하단에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수신 에버렛 스완슨 보육원(Everett Swanson Orphanage)

(보육원 이름이 있다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나의 간증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한국사무실, 김순복(Kim, Soon Bok)

어렸을 때 저는 친구들과 교회에 갔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셔서 교회에 갈 때마다 집에서 몰래 나가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계속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저는 11살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의 오빠가 천주교 성당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성당에 갔고 그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하얀 베일을 어깨 위로 늘어뜨린 채 앉아 있는 사람들이 왠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함께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신교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여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두 번의 예배가 학교에서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가증스러운 악행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따르면 성경은 죽은 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주교 문턱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요일에는 미사에 참석하고 천주교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도 저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몹시 괴로웠고, 절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천주교 성당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지만, 저의 끊임없는 권면으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나중에 온 가족이 불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모든 가족을 천주교로 인도했지만, 정작 저 자신은 구원의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당에 가기가 싫어지기 시작했지만, 온 가족을 성당으로 이끌었고 모두 천주교인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언니가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모임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인한(Lee In Han)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혼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 들은 것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리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천주교 친구들로부터 개신교로 개종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영혼의 구원자로 마리아나 다른 어떤 성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약성경을 밤낮으로 읽기 시작했고, 곧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지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하나님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1960년 4월의 일입니다.

저는 곧 동산(Tongsan) 장로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여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고, CCC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이인한(Lee In Han) 목사님의 소개로 한국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사무실에서 취업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저는 아직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